

'홍도1589' 홍보 함께 해요

전북문화관광재단, 서포터즈 '영 브랜드' 모집
대학생 대상... 내달 17일까지 이메일 접수
홍보콘텐츠 기획·제작, 공연마케팅 실무 참여



전북문화관광재단이 4월 17일까지 뮤지컬 '홍도1589'의 홍보 활동을 함께 할 서포터즈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영브랜드' 모집 포스터.

전북문화관광재단(이하 재단)은 뮤지컬 '홍도1589'의 홍보 활동을 함께 할 참신하고, 적극적인 15명의 서포터즈 '영 브랜드'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기간은 3월 30일부터 4월 17일까지다.
'영 브랜드'는 젊음(young)과 전북관광브랜드(brand)공연의 합성어로, '20대 젊은 청춘들과 함께 만들어 가는 브랜드공연'이라는 뜻의 서포터즈 명칭이다.
주요 활동으로는 전북관광브랜드공연을 주제로 온·오프라인 홍보콘텐츠 기획 및 제작, 현장 홍보 지원, 정기회의 참석 등으로 올해 12월까지다.
선발된 '영브랜드'에게는 위촉장 및 활동증명서 수여, 활동 시간에 따른 자원봉사시

간 인정, 재단과 함께하는 다양한 문화예술 투어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자격은 공연문화에 관심이 많은 도내 대학생 및 휴학생이면 누구나 가능하며, 특히 SNS 및 온라인(블로그, 유튜브 등)활동을 활발히 하는 학생과 유사 활동 경험자, 일러스트·포토샵 활용자 등을 우대해 선발할 예정이다.
지원을 원하는 학생은 재단 홈페이지(www.jct.or.kr)에서 지원신청서를 내려받아 필수 제출서류와 함께 4월 17일 18시까지 e메일(jct030204@jct.or.kr)로 제출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재단 홈페이지나 상설공연추진단(063-230-7481)에 문의하면 된다. /장은성 기자

익산시 '2020 한권의 책' 최종 선정

유현준 작가 '어디서 살 것인가' ... 청소년 권장도서서는 별도로

책을 통해 소통하고 공감의 문화를 만드는 익산시가 2020년 한권의 책으로 유현준 작가의 '어디서 살 것인가'를 최종 선정 발표했다.
'한권의 책으로 하나되는 익산' 사업은 지난 2004년부터 책 읽는 문화도시 익산 조성을 위하여 한권의 책을 통해 모든 시민이 소통하고 책과 문화를 통해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하는 범시민 독서운동이다.
이번 한권의 책 선정을 위해 올해 1월 말까지 시민들로부터 온·오프라인을 통해 다양한 분야의 책을 추천받아, 독서문화진흥위원회 등 독서전문가로 구성된 도서선정위원들이 총 3차에 걸친 열띤 토론을 거쳐 한권의 책 1권과 계절별 권장도서 2권을 최종 선정했다.
2020 익산시 한권의 책으로 선정된 '어디서 살 것인가'는 홍익대 건축학과 교수인 유현준 작가가 자신의 삶의 방향성에 맞추어 스스로 살 곳을 변화시켜 갈 수 있도록 건축과 공간을 읽는 방법을 소개하고, 다양한 건축 이론과, 자신의 사례를 결합해 독자들이 이해하기 쉽게 건축 이야기를 풀어내고 있는 인문학 도서이다.
또한 어떤 공간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삶을 풍요롭게 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지향하는 삶의 방향에 부합하는 도시의 모습은 어떠한지 등 건축을 매개로 도시와 삶을 연결 짓는 흥미로운 통찰을 보여주고 있다.

이외에도 익산시민 모두가 참여할 수 있도록 계절별 권장도서로 청소년 부문은 이희영 작가의 '페인트'를, 어린이 부문은 임지형 작가의 '아쉬움에 사는 아이'를 별도 선정하였다.
올해 한권의 책으로 선정된 3권의 도서를 활용해 작은도서관과 학교, 독서동아리 등에서 시민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독서일레이, 독서마라톤, 북콘서트 및 작가와의 만남, 전국 독후감 공모전 등 다채로운 독서문화행사를 전개할 예정이다.
정현을 익산시장은 "익산시민 모두가 한권의 책을 통해 서로 소통하고 공감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앞으로 이어질 다양한 연계 프로그램에 많은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로 익산시가 책 읽는 문화도시로 거듭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한권의 책 저자인 유현준 작가는 현재 홍익대학교 건축도시대학 교수이자 (주)유현준 건축사무소 대표 건축사로 재직 중이다. 연세대 건축공학과를 졸업한 후 미국 하버드대와 MIT에서 건축을 공부했다. 주요 저서로는 <도시는 무엇으로 사는가> <현대건축의 흐름> <모더니즘: 동서양문화의 하이브리드> 등이 있다.
'명견만리'와 '알쓸신잡 2', '어쩌다 어른' 등 다수의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했다. /익산=장양원 기자

'지역 만화가' 키운다

전북도-전북문화콘텐츠진흥원
웹툰캠퍼스 만성지구에 조성

전북도와 전북문화콘텐츠산업진흥원은 지역의 웹툰 창작자 양성과 만화 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역 웹툰캠퍼스 조성 및 운영' 공모사업 신규 수행기관으로 선정됐다.
30일 전북도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한국만화영상진흥원이 주관하는 이 사업은 관련 예산 7억원을 들여 웹툰 교육실, 웹툰 작가 작업실, 웹툰 전시실을 구축한다.
또 웹툰 창작자 양성을 위한 단계별 교육 및 특강, 개발지원 사업 등도 추진된다.
웹툰캠퍼스는 전주시 덕진구 만성지구에 위치한 진흥원 인근에 800㎡ 규모로 오는 9월까지 조성 예정이다.
전북도와 진흥원은 웹툰 만화가 250명 양성을 목표로 200시간의 수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최용석 전북문화콘텐츠산업진흥원장은 "이번 웹툰캠퍼스 조성사업을 통해 지역 문화 콘텐츠 산업의 경쟁력을 더욱 강화하고, 체계적인 웹툰 창작자 지원을 통해 지역의 차별화된 콘텐츠를 만들어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전주매일 홈페이지
www.jjmaeil.com

감염병 의심되면 '1339'로

'한국경쟁' 본선 진출작 발표

전주국제영화제, '갈매기' 등 11편

제21회 전주국제영화제 공식 경쟁 부문 중 하나인 '한국경쟁'의 본선 진출작이 발표됐다. 30일 전주국제영화제 조직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5월 28일부터 6월 6일까지 전주 영화의 거리 일대에서 열리는 제21회 영화제의 공식 경쟁 부문인 '한국경쟁' 부문 본선 진출작 11편이 선정됐다.
한국경쟁은 지난해 1월 이후 제작된 감독의 첫 번째 혹은 두 번째 장편영화를 대상으로 하는 메인 경쟁 섹션이다.
올해 한국경쟁에는 지난해보다 20% 증가한 125편의 출품작이 접수됐으며, 이 중 극영화 10편, 다큐멘터리 1편 등 모두 11편이 최종 선정됐다.
선정 작품 중 극영화는 '갈매기'(감독 김미조), '괴물, 유령, 자유인'(감독 홍지영), '나를 구하지 마세요'(감독 정영경), '담쟁이'(감독 한제이), '더스탠'(감독 김나경), '비탈아 안개를 걷어가다오'(감독 신동민), '빛과 철'(감독 배종대), '생각의 여름'(감독 김중재), '파

견: 나는 나를 해고하지 않는다'(감독 이태겸), '홀리스'(감독 임승현)이다.
다큐멘터리는 '사당동 더하기 33'(감독 조은)가 뽑혔다.
분석 프로그래머는 "올해 출품된 125편은 오늘날 한국 사회의 맨 얼굴을 드러내고 있다"면서 "양극화된 세계 속 극심한 빈곤과 고독, 갑의 횡포와 을 대의 대립, 여성에 대한 차별과 폭력 등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는 심각한 문제를 다양한 방식으로 다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선정작 중 여성 감독이 연출한 영화는 절반이 넘는 6편이었다. 이는 미투 운동 이후 한국 사회와 영화계가 서서히 변화의 바람을 타고 있다는 사실의 반영"이라며 "남자 감독의 영화 중에도 여성이 주인공이거나 여성적 담론을 주제로 하는 작품이 두드러지게 많다는 사실 또한 이런 분석에 힘을 실어준다"고 심사평을 전했다.
이번에 발표된 한국경쟁 본선 진출작들은 5월 28일 개막하는 제21회 영화제에서 소개되며, 본선 심사위원들의 심사를 거쳐 대상, 배우상 등의 시상식이 이뤄질 예정이다. /뉴시스



전주 한옥마을에 조성되는 전통놀이 문화공간 두 곳의 통합 명칭이 '우리놀이터 마루달'로 정해졌다. 한옥마을역사관 마당. (사진=한국전통문화전당 제공)

한옥마을 전통놀이 문화공간 새 이름은 '우리놀이터 마루달'

전통문화전당 '하늘과 땅 이어주는 공간 상징성 사람들이 쉬며 여유 누기는 문화공간과 잘 어울려'

전주 한옥마을에 조성되는 전통놀이 문화공간 두 곳의 통합 명칭이 '우리놀이터 마루달'로 정해졌다.
한국전통문화전당은 최근 전주 한옥마을에 조성할 예정인 전통놀이 문화공간의 명칭 선정을 위해 공모전을 한 결과 전국 각지에서 총 912편이 접수됐고, 엄격한 심사를 통해 '마루달'을 최종 선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최우수(장원급제) 당선작인 '마루달'은 순우리말인 '마루'와 '달'로 이뤄진 이름으로 마루는 하늘을, 달은 땅을 의미한다.
심사위원들은 "'마루달'은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공간의 상징성을 띠고 있다는 점에서 사람들이 쉬며 여유를 느낄 수 있는 전통놀이문화 공간과 잘 어울린다"고 평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전당과 전주시는 현재 한옥마을 내 재정비 중인 전통놀이문화 공간 2곳의 통합 명칭으로 '우리놀이터 마루달'을 사용하기로 했다. 당선작 '마루달'이라는 이름에 놀이 공간이라는 의미가 전달될 수 있도록 '우리놀이터'를 붙였다.
앞서 진행된 공모전을 통해 마루달 외에도 놀이마루가 우수상(방인), 놀이밭, 놀밭, 한놀마루, 한놀마당, 놀마루, 놀마당'이 장려상(담화량)을 각각 받았다. 도담터, 어울터, 놀이볼터 등도 아이디어상을 받았다.
앞으로 전당은 '우리놀이터 마루달'을 현시대에 맞게 재구성 또는 변형한 생활 속 전통놀이 놀이 공간을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전통놀이가 일상이 되는 공간, 흥이 넘치는 공간으로 조성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실내 놀이 공간은 전주시 완산구 은행로 39번지 일원 옛 청명원 자리며, 실외공간은 전주시 완산구 최명길 17-10번지 일원 한옥마을역사관 마당에 조성할 예정이다.
김선태 원장은 "앞으로 조성될 생활 속 전통놀이 문화공간이 아름다운 우리말인 '마루달'이라는 새 이름을 갖게 돼 기쁘다"면서 "제대를 아우르고 공동체 의식을 함양할 수 있는 전통놀이 문화공간의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뉴시스

전주영화제작소, 내달 12일까지 '무료대관 공모전시' 진행

전주영화제작소는 지역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예술가들과 시민들과의 소통의 창구를 마련하고자 오는 30일부터 내달 12일까지 '2020 무료대관 공모전시'를 진행한다.
2011년부터 시작된 전시 무료 대관 사업은 열정 있는 예술인에게 전시공간을 제공하고 창작 의욕을 높이는 동시에 지역 시민들에게 다양한 문화, 예술 향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돼 왔다.
공모 대상은 전주 지역에 거주하면서 활동하는 예술인이라면 누구나 접수 가능하며, 회화·설치 및 조소·영상·사진·만화·디자인·공예·건축 등의 장르를 지원하고 있다.

단 전시 기회를 고르게 제공하기 위해 이전 진행된 공모 전시에서 3회 이상 선정됐거나 특별한 사유 없이 중도에 전시를 포기한 과거 선정 대상자, 상업적인 목적의 전시는 제외된다.
이번 사업은 총 6팀을 선정해 오는 7월부터 12월 사이에 진행할 예정이다.
선정된 팀에는 1층에 마련된 전시 공간과 전시 관련 보도자료, 전주영화제작소 소식지 및 메일링 등의 홍보가 지원된다.
신청을 원하는 작가는 참가 신청서, 행사·전시 계획서, 작가 이력서(홈페이지에서 양식 다운로드)를 작성 후 이메일(theque@jongjfest.kr)로 접수하면 된다. /뉴시스